

파괴된 죽음, 회복된 삶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을 만하고 진실하니 이것을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4 및 5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이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향합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혼돈과 파괴, 죽음의 소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 대한 안도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15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대부분은 모든 인류가 죄로 저주받아 죽어가는 종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의 결과일 뿐입니다. (로마서 5:12, 고린도전서 15:22). 그러나 전쟁, 혁명, 사고, 범죄, 마약 및 기타 과거와 현재의 특정 악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참으로 슬픔과 울음의 밤이지만, 우리에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된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30:5). 그 복된 기쁨의 아침은 '의의 해'가 떠오르면서 시작될 것이며, 그 해는 '날개를 치며'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과 기타 질병을 치유하고 평화와 건강, 생명을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말라기 4:2).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류의 세계에 대해 제시하는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질병과 죽음은 물론 현재 인류를 괴롭히는 다른 모든 악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죽음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 새날의 기쁨, 즉 현재의 어두운 슬픔의 밤 뒤에 올 기쁨의 아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모든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성경에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생명을 주는 능력을 사용하여 죽은 자를 깨우신 수많은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죽음에 잠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신성한 목적의 증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일부는 구약 시대에, 다른 일부는 예수님 시대와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일어났으며,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자매를 죽음의 잠에서 깨웠습니다.

미망인의 아들

선지자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깨워 생명을 회복시키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엘리야는 "아이에게 세 번 몸을 엮고 주님께 외치기를, 주 나의 하나님이며, 이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 다시 들어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 다시 들어와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뒷방에서 집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7:21-23

이 기록의 번역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인간 안에 영혼이라는 무형의 무언가가 있으며,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잘못된 관념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인용된 번역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생명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소년의 생명이 그에게서 떠났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쟁, 질병, 젊은 시절, 노년기 등 죽음으로 잠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온 땅에서 여전히 나타날 하나님의 회복 능력의 본보기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을 흙으로 되돌리시고 "사람의 자녀들아,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러냈습니다." 시편 90:3

수남인의 아들이 깨어났다.

일사병으로 사망한 수남 여인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18-20). 아들이 죽자 어머니는 엘리사를 불러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정말 죽어 있었고 선지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몸 위에 누워 아이의 입에 입을 대고 아이의 눈에는 눈을, 아이의 손에는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뺐자 아이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일어나서 방을 한 번 앞뒤로 걸은 다음 다시 아이 위에 몸을 뺐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불러!" 그가 말했다. 그녀가 들어오자 엘리사는 "자, 네 아들을 데려가라!" 32-36절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다"는 고대의 속담이 자주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나타난 증거에 따르면 죽은 모든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아직 죽은 자의 일반적인 회복을 위한 때가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회복의 때"라고

묘사한 그 때에도 여전히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의 고대 선지자들에 의해 생명으로 회복된 두 소년은 후대에 다시 죽음으로 돌아갔지만, 다가오는 회복의 시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28-29; 로마서 5:18-19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되찾은 나인 성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장례 행렬이 마을 문에 다다랐을 때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청년은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마을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보시고 연민으로 마음이

넘치셨습니다. "울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관으로 다가가 관을 만지시자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젊은이,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소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12-15

그런 다음 회당장의 딸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사람들이 울며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내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생명(헬라어: 숨)이 돌아왔고 그녀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52-56

라자루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의 고전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베다니의 이 작은 가족은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조금 떨어진 세레 요한이 세레를 베풀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10:40).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자를 보내 오빠의 병을 알렸지만 예수님은 며칠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일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4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서 잠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제자들은 나사로가 단순히 조용히 잠들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라도 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다, 이제 너희는 정말 믿을 것이다. 자, 가서 그를 보러 가자." 14절과 15절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언급하면서 잠을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남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류 전체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뵈었을 때 "주님,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제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1:21-22). 이것은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마르다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오빠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어날 때 그도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의 소망이 기록된 구약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과 회복 계획의 마지막 시기, 즉 예언에서 "마지막 날"로 언급된 그리스도가 신성한 능력에 의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2:2, 25:6-9). 실제로 이 '그 날'은 천 년의 길이이며, 인류의 죽은 세계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8; 요한계시록 20:4, 6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5). 즉,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인간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고, 이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잠든 모든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5, 6; 마태복음 28:18). 그 당시 나사로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신 것은 죽음 가운데 잠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일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고 그의 살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깨어남은 신성한 능력에 관한 한, 죽은 지 며칠이든 나흘이든 수천 년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 주는 능력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였습니다.

첫 번째 열매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특정 사람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것과 관련하여 언급된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생명으로 회복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신성한 능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주지만, 죽음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부활의 첫 사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은 모든 사람의 큰 수확 중 첫 열매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22). 즉, 순종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인간의 삶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의 집과 신성한 본성으로 높이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를 언급합니다. "높이 때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68:18을 언급합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 많은 포로를 잡으셨습니다." 이 "많은 포로"는 소위 부활의 "후과일"로, 포로(이 경우에는 죽음의 포로)가 풀려나는 것에 비유됩니다. 얼마나 많은 포로가 잡혔나요!

그들은 성경에서 "첫 열매" 부류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행할 것이며, 이들은 남은 인류 세계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일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18).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들이 "첫째 부활"로 나올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살며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4 및 6).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죽음의 감옥에서 가장 먼저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집과 영광과 존귀와 불멸로 승영됩니다.
로마서 2:7

대지의 왕자

부활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실 또 다른 죽음의 포로 그룹은 시편 45:16에 언급된 충실한 고대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온 땅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는 이들 중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련을 겪은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주님의 대의를 위해 고난을 견뎌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35

이들은 그들의 큰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확신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이 "더 나은 부활"에 합당함을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순식간에 완전하게 부활하는 것이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신성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지상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39-40).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때에 야곱이 다시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얼굴이 다시는 늙어서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9:22-23

생명의 위대한 회복자에 의해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될 또 다른 죽음의 포로 집단은 요한 계시록에서 "큰 무리"라고 묘사한 집단입니다. 이들에 관해 우리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니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주야로 그를 ,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임재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 요한계시록 7:9, 14-15

이 큰 무리 부류는 첫 열매인 예수님의 충실한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 있지 않고 보좌 '앞에'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이들의 봉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선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부활

무덤에서 끌어낼 마지막 죽음의 포로 그룹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남은 시체가 될 것입니다. 이 그룹에는 불신앙, 부분적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범죄자,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어린이들, 성경의 가르침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그 믿음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거나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번역본에서는 이들이 죽음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29). 이는 이 죽음의 포로들이 죽음의 잠에서 해방되면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판, 즉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메시아 왕국과 약속된 천 년의 심판의 날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날'은 주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사도행전 17:31

이사야 26장 9절은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의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주님께서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될까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고, 숲의 모든 나무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그가 오실 것이니,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그는 공의로 세상을, 그의 신실함으로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6:11-13

몸값 반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5-6). 이것이 바로 그분이 죽음의 포로들을 이끌고 나오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사야는 인류의 세계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행복한

때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주께서 대속하신 자들이 ...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5:10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스울"과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하데스"는 성경에서 모든 인류가 죽을 때 들어가는 큰 감옥, 죽음의 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고(즉, 세상의 죄 때문에,), 지금은 살아 있으며 "지옥의 열쇠("하데스")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죽은 자가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 사용하여 포로의 문을 열고 활짝 열어 죽음의 포로들을 깨우고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풀려나고 영생에 합당한 사람들이 신성한 의의 원칙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고 완전한

인간 완전성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첫 성구에서 언급했듯이 "다시는 사망이 없으리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 것은(는) 지나갔고", 마지막 남은 죽음의 포로들은 풀려나 지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써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4-7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2025년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어둠 속에 있지만,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기쁜 새날이, 아니 시대의 징조가 말해주듯,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전망에 기뻐하십시오!